

추 모 사

혜명당 무진장 대종사님,

지금이라도 대웅전 앞마당을 나서면 고동색 법의와 푸근한 미소를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이제 스님께 의지했던 사부대중이 이렇게 모여 다음의 인연을 발원하고 있습니다.

향화를 올리는 이 시간의 깊은 뜻으로 남아 있는 중생의 상심은 미래를 위한 성찰로 승화되니, 인연의 마디를 또 하나 매듭하는 찰라에도 이생의 인연들은 서로가 보이는 감화의 얼굴에서 스님의 가르침을 찾을 수 있습니다.

법을 청하는 자리가 있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달려가셨고, 두루 막힘이 없는 법문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무량광대한 불법대해로 모여들게 하셨으니, 불법에 눈을 뜬 이가 그 얼마이며 불교에 귀의한 이 또한 그 얼마이겠습니까.

항상 근검절약하시며 수행자로서의 면모를 잃으신 적이 없었던 스님의 법향은 수많은 중생에게 고귀한 불법 인연을 맺어주었습니다. 이제 큰스님의 법문을 다시 들을 수 없다고 여기니 불자들은 가슴 깊은 아쉬움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.

부처님 전에 한반도의 포교를 서원하고 오직 대원력 하나로 포교의 큰 물줄기를 이루어 내셨으니, 사부대중은 이 땅에 하생하신 부루나 존자의 화현이라 여기며 하루하루 부지런하겠습니다.

무진장 대종사님!

앞은 지고 바람은 차가워지나 스님의 소탈한 일생과 푸근한 웃음만큼이나 시

월국화는 한창입니다. 오늘 이곳에 가득한 국화꽃을 무량공덕 지으신 덕화로
삼고 후학들은 정진으로 화답하겠습니다. 속히 돌아오시어 청아한 법음으로
저희의 눈과 귀 밝혀 주소서.

불기2557년 10월 27일

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